

# 『홍무정운역훈』의 문백이독 연구

沈小喜\*

## 目 录

1. 서론
2. 『홍무정운역훈』의 문언음과 백화음
3. 『홍무정운역훈』 문백이독의 특징
4. 맺음말

## 1. 서론

15세기 조선에서는 한자의 오랜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였다. 이는 ‘나·랏:말싸·미 둥꺠·에 달아 문짱·와·로 서르 슝·디 아·니’하다는 인식하에 신생 유교국가로서의 자주독립의식, 그리고 문자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어린 백성에 대한 세종의 애민정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창제는 무엇보다 표음기능이 부실한 한자에 대한 심오한 학문적 통찰이 빚어낸 위대한 업적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자문화권에 서 오랜 세월동안 축적되어온 ‘韻學’을 학문적 배경으로 비로소 정확하게 한자의 음을 표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이 세종 25년(1443)에 창제되어 28년(1446)에 간행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세종 26년 또는 27년부터 시작된 『홍무정운』의 역훈작업은 훈민정음의 창제와 더불어 바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왜 그렇게 서둘러 『홍무정운』의 역훈사업에 착수하였을까?

\* 梨花女大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홍무정운』은 명 태조 朱元璋의 칙령으로 홍무 8년(1373)에 편찬한 표준 문언음 운서이다. 수대의 『切韻』(601)부터 唐의 『唐韻』(732), 宋의 『廣韻』(1007), 金의 『五音集韻』(1212), 元의 『古今韻會舉要』(1297), 明의 『洪武正韻』(1375), 淸의 『音韻闡微』(1726)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문언음의 통일작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과거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수월성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국책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자들은 『홍무정운』의 인위적인 문언음 체계가 당시의 실제 음운 체계를 재구하는 어음자료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청대에서도 『홍무정운』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기만 하다. 淸 乾隆帝 47년 『四庫全書總目提要』(1782)<sup>1)</sup>에서는 『홍무정운』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면서 심히 공격하였다.<sup>2)</sup>

이 책은 본래 수록하기에 부족하지만, 이 책은 한 시대의 글자음을 다룬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지 않다면 운학의 연혁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 법령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 법이 지극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반드시 역사책에 그것을 기록하였던 것을 본받아, 진실로 그 자취를 없애지 않았으니 후세는 깊이 헤아리지 말라.<sup>3)</sup>

이러한 평가는 어쩌면 淸朝가 정복왕조의 입장에서 明朝 관운서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한편으로 청대의 흠정운서인 『음운천미』가 『홍무정운』보다 더 복고적인 체계를 지향했던 점들을 볼 때, 청대가 명대보다 더 복고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무정운』이 여타 운서와는 달리 「藩刻本」 5종, 「經

- 1) 『四庫全書總目提要』 第九冊卷四十二經部小學類三
- 2) 심소희, 「『홍무정운 서』를 통한 정음관 고찰」, 한국중국어언어학회: 중국언어연구 제35집, 2011. 48쪽.
- 3) 『四庫全書總目提要』: “其書本不足錄, 以其書有名一代同文之治, 削而不載, 則韻學之沿革不備, 猶之記前代典制者, 雖其法極爲不善, 亦必錄諸史冊, 固不能泯滅其迹, 使後世無考耳.”

廠本」1종, 「私刻本」5종 이외에 刻版者나 각판 장소가 불분명한 「明刻本」의 異本 5종 등 판본수가 무려 10종에 이르며, 『永樂大典』 『五車韻瑞』 등처럼 『홍무정운』의 운목을 책의 목차로 사용된 경우도 있어서 당시 官韻書로서 매우 환영받았다는 점이다.<sup>4)</sup>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영조 46년에 『홍무정운』이 간행되었고<sup>5)</sup>, 일본<sup>6)</sup> 등 인근 한자문화권 주변 국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7)</sup>

이와 같이 『홍무정운』이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홍무정운』에는 王都의 음을 근간하였더라도 고어를 완벽하게 보존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문언음(독서음) 체계가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8)</sup> 비록 일반 대중과는 유리된 음이었지만, 사대부 계층에서는 詩賦를 짓거나 경서를 읽을 때, 또는 과거시험을 준비할 때, 『홍무정운』에 기재되어 있는 글자음을 표준으로 삼았다. 다시 말해 『홍무정운』은 동아시아지역 한

- 4) 張士佩의 『洪武正韻玉鍵』, 楊時偉의 『洪武正韻補箋』, 朱厚燠의 『洪武正韻高唐王篆書』, 周家棟의 『洪武正韻彙編』, 저자 불명의 『洪武正韻傍音釋義』 등처럼 명대 학자들 사이에는 『홍무정운』에 대한 연구나 이용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甯忌浮(2009)는 명대를 운서봉출시기라고 규정하고 운서 가운데 章黼의 『并音連聲字學集成』(1460), 朱祐檉의 『重編廣韻』1549, 楊時偉의 『洪武正韻箋』(1626), 余象斗의 『遵韻篇海正宗』(1598), 朱孔陽의 『字韻合璧』(1628), 陳仁錫의 『遵韻篇海朝宗』, 許爾寧의 『韻略』, 『辨音纂要』(1624), 朱光家の 『字學指南』(1601), 呂坤의 『交泰韻』(1603), 毛曾의 『并音連聲字學集要』(1561) 등을 모두 『洪武正韻』계통 운서로 분류하고 있다. 甯忌浮, 『漢語韻書史』, 上海人民出版社, 2009
- 5) 『영조실록』 44년 4월 24일의 기사: “좌의정 韓翼謨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漢音은 일체 『洪武正韻』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俗音으로 고쳐 간행하는 바람에 계속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음으로 강습하게 하고 곁에다 속음을 기록하여 참고로 하게 하소서.” 하였다.…… (左議政韓翼謨奏曰: “我國漢音, 一從『洪武正韻』釐正矣. 年來以俗音改刊, 以訛傳訛. 請以本音講習, 傍錄俗音, 以備參考.”)
- 6) 일본의 한자음과 명청시기 관화음(문언음)과의 비교 연구는 張昇余, 『日本唐音與明清官話的研究』, 興界圖書出版公司, 1998. 丁鋒, 『日漢琉漢對音與明清官話音研究』, 中華書局, 2008 참조.
- 7) 심소희, 「홍무정운(洪武正韻) 서문(序文)을 통한 정음관 고찰」, 한국중국어학회: 『중국언어연구』 제35집, 2011. 45-47쪽.
- 8) 『홍무정운』의 문언문의 위상에 대한 평가는 향후 면밀한 자료검토 및 언어 문화적 배경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문화권에서 사대부 지식층의 소통방식으로서, 문언음의 지침서로서 군림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시급히 『홍무정운』의 역훈 작업에 매진한 것은 명과의 교역을 통해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홍무정운』의 역훈 사업이 시작되고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들의 탁월한 심음능력은 중국인들이 그동안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즉 한자가 두 가지의 글자음으로 읽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그들은 이를 ‘正音’과 ‘俗音’이라고 명명하고 두 가지 계열의 한자음을 채취하고 정리하느라 지난한 세월을 보냈다. 『홍무정운역훈』의 「서문」에 “무릇 원고를 손질하기를 열 몇 번이나 고되게 되풀이하여 마침내 8년의 오랜 세월이 걸렸다.”<sup>9)</sup>고 밝히고 있는데 세종부터 착수하여 문종을 거쳐 단종 3년(1455)에 간행되기까지 장장 11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그만큼 정음과 속음의 전사 작업이 녹록치 않았음을 의미한다.

『홍무정운』의 역훈 사업을 주도하였던 신숙주(1417-1475)은 『四聲通考』 「범례 1조」에서 ‘정음’과 ‘속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운도와 운서 등 여러 서적 및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바로서 글자음을 정하였고, 또 중국의 현실음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운도와 운서의 음과는 맞지 않는 것은 글자마다 속음(俗音)이라고 적어 반절 아래 표시하였다.<sup>10)</sup>

즉 신숙주는 ‘정음’과 ‘속음’이 현재 중국인들에게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운도와 운서 등에 부합하는 어음’은 ‘정음’이고, ‘운도와 운서 등에 부합하지 않는 어음’은 ‘속음’이라고 하였다.<sup>11)</sup>

9) 『洪武正韻譯訓·序文』: “凡曆十餘載, 辛勤反復, 竟八載之久.”

10) 『四聲通考·凡例』 제1조: “以圖韻諸書, 及今中國人所用, 定其字音, 又以中國時音所廣用, 而不合圖韻者, 遂字書俗音, 於反切之下.”

11) 『洪武正韻譯訓·序文』: “속음과 두 가지로 쓰이는 음 또한 몰라서는 안 되므로 해당 글자의 밑에 따로 기입하였다(其俗音兩用之音, 又不可以不知, 則分注本字之下).”

그런데 15세기 신숙주의 이러한 발언은 20세기 초 중국 학자들의 발언과 사뭇 유사하다. 오늘날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 방언에 보편적으로 “文白異讀”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문백이독’이란 어느 방언이 외래방언의 어휘를 차용하여 쓰는 과정에서, 한 글자에 외래방언의 음과 본 방언의 음이 동시에 병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외래방언이란 그 지역의 대표적 방언 혹은 전국적인 대표 방언인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외래방언으로 읽는 음을 문언음(혹은 文讀音)이라고 하고, 본 방언으로 읽는 음을 백화음(혹은 白讀音)이라고 한다.<sup>12)</sup>

이러한 중국 방언의 문백이독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는 章太炎(1869-1936)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新方言·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음송할 때의 소리는 唐韻을 쓰는데 俗語가 오히려 옛 음에 위배되지 않고, 통용어(通語)가 오늘날의 음을 쓰고 있다. 한 고을 한 마을에서 오히려 唐韻에 위배되지 않은 것은 여러 글자가 한 글자[聲符]를 따라 만들어졌는데, 당은 이래 그 (성부)글자가 변하였지만 나머지 글자는 여전히 본래의 部에 남아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속어에서는 (성부의) 그것을 따라서 함께 변하였으니 이치를 끝까지 따져 볼 수가 없구나.<sup>13)</sup>

장태염은 글자음을 음송할 때는 唐韻을 쓴다고 하고, 그 외 옛 음으로 읽히는 俗語와 오늘날 음으로 읽히는 通語에 대해 주의하였고, 聲符 글자음의 변화에 함께하지 못해 야기되는 글자음의 혼란상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 후 趙元任(1892-1982)은 『現代吳語的研究』(1928)에서 “중국의 많은 방언에서 몇몇 글자들은 책을 읽거나 자구를 따질 때 읽는 법이 있고, 말할 때 읽는 법이

12) 민남 방언에 속하는 하문방언에서는 문백이독 현상이 광범위하여 거의 다른 두 개의 방언체계와도 같은 문언음과 백화음이 공존하기도 한다. 모정열, 「漢語方言 중에 나타나는 文白異讀의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중문학회: 중국문학연구 33집, 2006. 463쪽.

13) 『新方言·序』: “有誦讀占畢之聲既用唐韻, 俗語猶不違古音者. 有通語既用今音, 一鄉一州猶不違唐韻者, 有數者同從一聲, 唐韻以來, 一字轉變余字則猶在本部, 而俗或從之俱變者, 不可窮理.”

있다.”고 하면서<sup>14)</sup> 실제 문언음과 백화음이 조성되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문백이독’의 명칭으로 처음 명명한 羅常培(1899-1958)는 『廈門音系』에서 “字音과 話音의 대립은 福佬話와 客家話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廈門의 토박이들은 字音을 ‘孔子白’이라고 하고, 話音을 ‘解說’이라고 하는데 각기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sup>15)</sup> 즉 20세기 현대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어 ‘문백이독’이라고 명명된 어음 현상은 바로 15세기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홍무정운』을 번역하면서 발견한 ‘정음’·‘속음’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세종과 신숙주 등 집현전 학자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중국 방언에 존재하고 있는 ‘문백이독’ 현상을 최초로 통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홍무정운역훈』의 정음과 속음이 이른바 현대 중국방언에 존재하는 문백이독이라고 전제하고 그의 문언음과 백화음의 채취경위를 통해 당시 문화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홍무정운역훈』의 문백이독 목록을 정리하여 문백이독 면모를 확인할 것이며, 특히 백화음의 음운특징이 중국 북방음의 어음변화가 그대로 노정되어 있는 중요한 어음자료임을 입증할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작업은 『홍무정운역훈』의 편찬 의의와 가치를 새삼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2. 『홍무정운역훈』의 문언음과 백화음

### 1) 문언음의 채취경위

먼저 『홍무정운역훈』의 정음이 과연 문언음인지, 어떠한 경유로 문언음을

14) 『現代吳語的研究』: “在中國好些方言当中有些字讀書或咬文時是一種念法, 說話時是一種念法。……”

15) 『廈門音系』: “字音跟話音的對立在福佬話和客家話里特別顯著。廈門本地人管字音叫做‘孔子白’, 管話音叫做‘解說’, 几乎各成一個系統。……轉變條理, 歸納成同聲異韻、同韻異聲、聲韻具異三個例。”

채취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1443), 신숙주와 성삼문을 요동의 한림학사 황찬에 보내어 『홍무정운역훈』의 편찬을 준비시켰다.

김현전 부수찬 申叔舟와 성균관 주부 成三問과 行司勇·孫壽山을 요동에 보내서 운서를 질문하여 오게 하였다.<sup>16)</sup>

세종조에 신숙주·성삼문 등을 보내어 요동에 가서 黃瓚에게 어음과 자훈을 질정하게 하여 『홍무정운』과 『사성통고』 등의 책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서 한훈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sup>17)</sup>

또한 세종은 성삼문·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중국사신 예겸과 사마순 등에 게도 『홍무정운』의 강론을 받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31년(1449년 12월 28일)과 32년(1450년 윤1월 3일)의 기사를 보자.

지금 오는 사신은 다 儒者이다. 신숙주 등이 교열한 운서를 질정하게 하고자 하니, 사신이 입경한 뒤에는 신숙주·성삼문 등에게 태평관에 왕래하게 하고, 또 孫壽山·林效善을 통역사로 삼게 하라.”<sup>18)</sup>

직 김현전 성삼문·응교 신숙주·봉례랑 손수산에게 명하여 운서를 사신에게 묻게 하였는데, 성삼문 등이 관반을 따라 보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분들은 무슨 벼슬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니, 김하가 말하기를, “모두 승문원 관원이고, 직책은 부지승문원사입니다.”하고, 손수산을 가리키면서, “통역사입니다.”하였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저희 나라는 멀리 해외에 있어서 바른 음을 질정하려 하여도 스승이 없어 배울 수 없습니다. 본국의 음을 처음에 쌍기 학사에게서 배웠는데, 쌍기 역시 복건주 사람입

16) 『세종실록』 27년(1445) 1월 7일: “遣集賢殿副修撰申叔舟、成均注簿成三問、行司勇孫壽山于遼東, 質問韻書.”

17) 『成宗실록』 18년(1487) 2월 2일: “世宗朝遣申叔舟、成三問等到遼東, 就黃瓚質正語音字訓, 成『洪武正韻』及『四聲通考』等書. 故我國之人, 賴之粗知漢訓矣.”

18) 『세종실록』 31년(1449) 12월 28일: “今來使臣, 皆儒者也. 申叔舟等所校韻書, 欲令質正, 使臣入京後, 使叔舟、成三問等往來太平館.” 又令孫壽山、林效善爲通事.”

니다.”한즉, 사신이 말하기를, “복건 땅의 음이 정히 이 나라와 같으니 이  
로써 하는 것이 좋겠소.”하였다. 하가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이 대인에게  
서 바른 음을 배우고자 하니, 대인은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하였다.  
성삼문과 신숙주가 《홍무운》을 가지고 한참 동안 강론하였다.<sup>19)</sup>

위의 예문에서 볼 때, 세종은 『홍무정운역훈』의 편찬하기 위해 요동에 거  
주하는 전한림학사 황찬과 유학자 출신인 중국사신 예겸, 사마순 등에게 『홍  
무정운』에 대해 문의하도록 하였다. 세종이 특별히 학식이 높은 사대부 학자  
들을 선별하여 질정한 것은 다름이 아닌 『홍무정운』의 문언음을 채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문종의 중국 사신 예겸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던 것  
같다. 문종은 성삼문에게 한자음에 대해선 모두 예겸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명  
에도 예겸만한 사람이 드물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성삼문이 명에 가서 예  
겸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꼭 물어볼 필요가 없다  
고 단언하였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임금이 말하기를, “音韻은 倪謙이 왔을 적에 이미 질문하도록 하였다. 비  
록 중국에서도 예겸 같은 자가 드물겠지만, 이제 成三問이 入朝하니,  
만약 예겸보다 뛰어난 자를 만나거든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물어볼 것도 없다.”<sup>20)</sup>

또한 문종은 신숙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世宗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申叔舟는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

19) 『세종실록』 32년(1450) 閏1月 3日: “命直集賢殿成三問、應教申叔舟、奉禮郎孫壽山、問  
韻書于使臣。三問等因館伴以見、使臣曰: “是何官也?” 金何曰: “皆承文院官員、職則副知承  
文院事也。” 指壽山曰: “此通事也。” 鄭麟趾曰: “小邦遠在海外、欲質正音、無師可學。本國之  
音、初學於雙冀學士、冀亦福建州人也。” 使臣曰: “福建之音、正與此國同、良以此也。” 何曰:  
“此二子、欲從大人學正音、願大人教之。” 三問、叔舟將《洪武韻》講論良久……”

20) 文宗 1年(1450年 10月 10日): “司憲掌令申叔舟齎音韻質問事目、及中朝教場形制、以啓。上  
曰: “音韻、倪謙來時、已令質問。雖中朝罕有如倪謙者、今成三問入朝、如遇勝於倪謙者、問之、  
否則不必問也。”

고 하였다. 비록 漢語는 모르지만 音訓에 정통하여 일찍이 倪謙·司馬恂과 더불어 교유한 바 있다. 이제 중국 서울로 보내어 예겸 등을 만나보고 事變의 전말도 묻고 書籍도 구해오려고 한다.”<sup>21)</sup>

위의 예문에서 볼 때, 신숙주가 정통한 것은 중국어[漢語]가 아니라 ‘音訓’이었던 것 같다. 신숙주는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항시 孫壽山를 대동하여 황찬<sup>22)</sup>을 방문하여 음운에 대한 의문 사항을 질문하였고, 예겸 사마순 등의 명 사신을 영접할 때에는 孫壽山 林效善 등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교류하였던 것이다.<sup>23)</sup> 신숙주의 문집인 『保閑齋集 附錄』에 수록되어 있는 「文忠公行狀」을 보자.

때는 마침 한림학사 황찬이 죄를 지어 요동에 유배를 왔다. 을축(1445) 봄에 공(신숙주)은 명을 받들어 중국으로 가는 사신을 좇아 요동에 갔다. 황찬을 만나 음운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공(신숙주)가 훈민정음[諺字]로 중국음(화음)을 번역하여 묻고 바로 깨우쳤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황찬이 크게 기이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요동에 왕복한 것이 13차례이다.<sup>24)</sup>

신숙주는 황찬에게 음운에 대해 질정하고 훈민정음으로 표음하여 화음을 깨우쳤다고 전하는데 운학에 바탕을 둔 문언음을 터득하였던 듯하다. 이후 신숙주는 황찬을 13번이나 방문하면서 깊이 친교를 맺었고, 황찬은 신숙주에게

21) 『문종실록』 1년(1451年) 8월 5일 3번째 기사: “世宗嘗言: ‘申叔舟可任大事者.’ 雖不知漢語, 然精於音訓, 曾與倪謙、司馬恂相從遊。今欲遣京師, 見謙輩, 問事變, 又購求書籍。”

22) 黃瓚은 중국 강서에서 출생하여 1433년에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한림원학사로 발탁되었으며 그후 형부의 주사로 임명된 바 있었는데 남경에서 양곡을 수납할 때 상관의 부정행위를 정부에 보고했다가 오히려 그 죄를 뒤집어쓰고 요동으로 귀양온 사람이다. 1448년에 요동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그 때의 나이는 40여세로 추측된다.: 이득춘 편, 『조선어 역사언어학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1. 304쪽.

23) 백옥경, 「조선전기 역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24) 『保閑齋集 附錄』 「文忠公行狀」: “時適翰林學士黃瓚以罪配遼東。乙丑春。命公隨入朝使臣到遼東。見瓚質問音韻。公以諺字翻華音。隨問輒解。不差毫釐。瓚大奇之。自是往還遼東凡十三度。”

“希賢堂”라는 호를 지어줄 정도로 매우 막역한 친분관계를 맺었다. 신숙주의 문집 『保閑齋集』 「附錄」에 수록되어 있는 황찬이 쓴 「希賢堂詩序」의 전문을 살펴보자.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영광과 치욕을 모두 거두었지만, 번창과 화목한 세상을 만나게 되어 몸에는 유생의 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유생의 모자를 쓰며, 유학자로서의 말을 하고 유학자로서 행동하니, 이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대개 고인을 흠모하는 현인만이 이르기 어려운 경지일 것이다. 덕행, 언어, 정치, 문학 이 네 분야 중에서 한 분야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현자(인재)가 될 수 있다. 위로는 (순임금시대의) 皐, 夔, 稷, 契와 같은 현명한 신하들이 있었고, 중간에는 안희, 증참, 자사, 맹가가 있었고, 아래에는 주돈이, 정호, 장재, 주희가 있었는데, 그들의 고단했던 상황과 입신양명하여 출세한 분야는 각기 서로 달랐지만, 그들이 모두 현자임은 분명하다. 선비들이 희망하는 것이 어찌 이 밖에 다른 것을 추구하겠는가!

[士生天地間。鍾光獄之全。際熙皞之世。儒衣而儒冠。儒言而儒行。所以不可及者何哉。蓋能希古賢人而已。夫德行，言語，政事，文學。凡有一之足以法於人者。皆可以爲賢也。上而皐，夔，稷，契。中而顏，曾，思，孟。下而周，程，張，朱。窮達雖有不同。其爲賢也審矣。士之所以希望之者。豈外此而他適哉。]

현인을 흠모하는 선비를 나는 오래도록 보지 못했는데, 고양(高陽, 신숙주의 본관)의 범옹(泛翁, 신숙주의 자) 신숙주에게서 간신히 이러한 점을 발견하였다. 처음 신숙주가 가르침을 받고자 나를 방문하였을 때, 그의 용모는 매우 단정하고 중후했으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허술한 것이 없었다. 나는 그 사람 됨됨이가 시작과 끝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고 그와 한동안을 같이 지낸 후 나는 신숙주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후에 그는 떠났다가 한 달이 좀 넘은 후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의 의지함이 절실하고,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어 (나는) 그를 덕이 있는 선비로 보게 되었다.

[希賢之士。吾不見者久矣。僅得之於高陽泛翁叔舟。初。叔舟方以求益。來拜寓館。容貌極端重。而言動皆不苟。予意其人必有源委者也。處數日後。又有以得叔舟之心。旣而別去。越月餘復至。因其相資之切。而得其心愈深矣。迺以善士目之。]

돌아갈 때가 되어서는 (신숙주가) 당액으로 쓸 호를 지어달라고 하기에, “희현(현자를 우러러보고 현자가 되고자 함)”으로 (당)호를 삼으니, 주돈이(주돈이)의 “士希賢”이라는 말에서 취한 것이다. 숙주가 다시 절을 하며 말하길, ‘황송하게도 이러한 호를 내려주셨으니 희현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없으시면 안됩니다’라면서 숙주가 진심으로 나에게 구하니, 내가 어찌 그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거나 그에게 조언하기를 아까워하겠는가! 왜냐하면 (希賢의) 길이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발전되는 것인데 신숙주의 학문은 현재는 이미 매우 해박하고 심오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希(바라는 것)”라고 한 것은 정밀하고 미세한 오묘한 경지에 들어가고자 날마다 독려하는 것이다. 위로는 臯, 夔, 稷, 契의 학파를 거슬러 따라가고, 안희, 증참, 자사, 맹가의 학업을 잇고, 주돈이, 정호, 장재, 주희의 연구를 쫓아서 사물의 원리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도를 밝히고, 신실함을 세움으로써 근본에 통달하여, 황무함을 제거한 나머지로 하여금 편안히 거하는 날을 넓혀 가게 한다면 신숙하게 정묘하여서 결국에는 현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將歸。求其堂額。遂以希賢爲號。寔取周子士希賢之謂也。叔舟再扒曰。既辱賜號。不可無言指以希賢之路。于惟叔舟以誠求我。而我可不誠以遇之。或吝於言哉。何則。由路而後升乎堂。及堂而後入乎室。叔舟今已造於正大高明之域矣。所以希者。將欲入於精微之奧耳。由此而日勉焉。上遡臯, 夔, 稷, 契之流。中尋顏, 曾, 思, 孟之緒。下究周, 程, 張, 朱之理。窮理以明道。立誠以達本。使荒蕪既去之餘。寬廣幸居之日。駸駸乎闢妙。畢竟庶幾可探也。]

누가 뛰어난고 현명한 인재의 존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던가? 비록 그러하지만, 만고에는 동일한 진리가 있고, 천하에는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 숙주의 마음은 오직 현(賢)을 희망하니, 그래서 (숙주가) 고인을 흠모하는 현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신숙주의 뒤를 따라 선비가 되는 사람들은 숙주의 현(賢)을 보고, 어찌 공경하고 사모하여, 지금보다 더 그의 현(賢)을 사모하지 않겠는가? 우리 선비 된 사람들은 고인을 흠모하는 것을 현(賢)으로 삼고, 지금 선비된 사람들은 우리를 흠모하는 것을 현(賢)으로 삼으니, 스승을 스승으로 삼고 아울러 법으로 삼아 배운다면 덕행, 언어, 정치, 문학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인재가 배출되지 않을 분야는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하니 이 당호(앞서 언급한 신숙주의 호)가 어찌 세상의 교화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경치가 아름답고 도서가 완비되어 있다면, 자신의 뜻에 따라 그곳에 가는

자는 나의 간여와 베풀(즉, 당액)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통 10년(명나라 영종, 1445년) 을축년 4월 8일. 진사 출신 전 한림원의 서기사, 승직랑, 형부주사 길수(지명)의 황찬 씀.

[孰謂賢不可以希望耶。雖然。萬古同一揆。天下同一心。叔舟之心。惟賢是希。所以希古之賢者也。則自今以往。繼叔舟而爲士者。獲觀叔舟之賢。得不起敬起慕。亦將希其賢於今乎。我之爲士。希古之爲賢。今之爲士。希我之爲賢。師師而並法。則德行言語政事文學。無地而不輩出矣。斯堂之號。豈不大有關於世教哉。若其景致之美。圖書之具。隨所適者。不待予之預設也。正統十年歲在乙丑孟夏八日。賜進士出身。前翰林院庶吉士。承直郎。刑部主事吉水黃瓚。書。]

황찬은 먼저 선비의 본분에 대해 강론하면서 그에 합당한 선비로서 신숙주를 지목하고 그의 인품에 대해 칭송하였다. 신숙주에게 “希賢”의 호를 지어주면서 진정 “希賢”을 추구하는 올바른 선비가 되어 후세 선비들의 모범이 되기를 독려했다. 본 기사를 통하여 명과 조선의 사대부들의 친교의 현장을 지척에서 목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여, 신숙주가 요동에 13번이나 가서 황찬에게 물은 내용이나 중국사신 예겸이나 사마순에게 문의한 내용은 음운, 즉 문언음[정음]에 관한 사항이었던 듯하다. 문언음을 통하여 명과 조선의 사대부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2) 백화음의 채취경위

그런데 세종과 신숙주 등 집현전 학자들이 명의 사대부 학자들을 통해 문언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또 다른 한자음이 사용되는 정황을 포착하였다. 그 한자음은 운도와 운서에서 제시하는 음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세속에서 많이 통용되는 한자음이었다. 『홍무정운역훈·서문』에 “세종께서는 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이 통하지 않아서 반드시 역관에 의지해야 하는 사실을 비추어 보시고, 가장 먼저 『홍무정운』을 번역하라 명하셨다.”<sup>25)</sup>고 하였듯이, 역관에 의지하지 않고도 소통하는 것이 『홍무정운

역훈』의 편찬 의도였으므로 세종이 실제 명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선 속음[백화음]을 간과할 수 없었다. 다음의 기사들은 세종이 실제 현실음의 번역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예조 판서 申商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가 事大하는데 있어서 譯學보다 더 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司譯院의 生徒들은 語訓만 익히고 文理를 알지 못하여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나 우리 나라의 사신이 명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통역이 잘못되어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역학은 실로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하였다.<sup>26)</sup>

대저 이문(吏文)을 강습하는 생도들의 학업 공부는 어떠한가.”하니, 의생(義生)이 대답하기를, “비록 그 중에는 조솔(粗率)한 자도 있사오나, 그래도 좀 우수한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 이들 생도들은 비록 중조(中朝)에 가서 견문하지는 못하여도, 요동(遼東)에라도 왕래한다면 그 학업 이 반년(半年)의 공효보다 갑절이나 될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국에서 중국말[華語]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위로는 한·당부터 송·원에 이르도록 모두 자제들을 보내어 국학(國學)에 입학하여 줄 것을 청하였었다. 지난번에 역시 자제들을 보내어 입학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생도들을 파견하여 중국의 음훈(音訓)을 학습시키려는 것은 나의 뜻이지만, 중국에서 외국 사람이라고 허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다. 다시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sup>27)</sup>

세종은 화어[중국어] 학습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제들을 중국

- 25) 『洪武正韻譯訓·序文』: “於是吾東國世事中華, 而語音不通, 必賴傳譯, 首命譯洪武正韻.”
- 26) 『세종실록』 11년(1429) 9월 6일 기사: “禮曹判書申商啓: “我國事大, 莫重譯學, 今司譯院生徒, 但習語訓, 不曉文理, 接待上國使臣及我國使臣入朝之日, 傳譯舛訛, 以致譏笑. ……上曰: “譯學, 實國家重事. ……”
- 27) 『세종실록』 21년(1439) 12월 4일 기사: “大抵講肄吏文生之肄業何如?” 義生對曰: “雖間有粗率者, 然稍優者亦多. 此等生雖不見聞於中朝, 亦往來於遼東, 則其肄業倍於半年之功矣.” 上曰: “外國欲習華語, 是誠美事. 上自漢, 唐至于宋, 元, 皆遣子弟, 請入國學. 曩者亦請遣子弟入學, 未得蒙允. 欲遣生徒習中國音訓, 予之素志, 但恐中國以外國之人不許耳, 更議可否以啓.”

國學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그리하여 세종은 당시의 수도이며 정치 외교의 중심 지역이었던 燕都(지금의 북경)을 7, 8차례 오가며 만난 변방 외국의 사신과 종교인, 그리고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북방 사람들을 통해 음을 채취하였고 문언음(정음)과 백화음(속음)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어음도 이미 다르고 와진된 것도 많아서 신들에게 중국의 선생이나 학자에게 나아가 바로잡도록 하시니, 내왕한 것이 7, 8차에 이르고 물어본 사람도 여러 명이였다. 연경은 만국이 회동하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멀지만 일찍이 교제하며 설명해 준 자가 또한 적지 않았으니, 다른 지역의 사신들과 불교도며 도교도며, 미천한 사병에 이르기까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정음(正音)과 속음(俗音)의 다르고 같게 변한 것을 모두 밝히고자 중국의 사신으로 본국에 온 자가 유학자이면 또 물어서 올바르게 취하였다.<sup>28)</sup>

『홍무정운역훈』에 채취된 백화음[속음]은 15세기 연경(현재의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지역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홍무정운역훈』의 속음은 그로부터 50년 이후 최세진(1473-1542)이 편한 『번역노걸대』에 수록되어 있는 左音과도 일치하는 바,<sup>29)</sup> 분명히 『홍무정운역훈』의 속음은 운서와 운도에 부합되는 음이 아니었지만 현실 기반을 둔 통용 한자음이었을 것이다. 즉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그들의 탁월한 심음능력으로 약 500년이나 앞서 중국 방언의 문백이독 현상을 진단하고 중국 한자음의 음의 변화를 정확히 채록한 것이다.

28) 『洪武正韻譯訓·序文』: “然語音既異. 傳訛亦甚.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于七八. 所與質之者若干人. 燕都爲萬國會同之地. 而其往返途道之遠. 所嘗與周旋講明者. 又爲不小. 以至殊方異域之使. 釋老卒伍之微. 莫不與之相接. 以盡正俗異同之變. 且天子之使至國而儒者. 則又取正焉.”

29) 蔡瑛純, 「從朝鮮對譯資料考近代漢語音韻之變遷」, 대만사범대학 박사논문, 1986.

## 3. 『홍무정운역훈』 문백이독의 특징

## 1) 『홍무정운역훈』의 체제

『홍무정운역훈』은 전 16권 8冊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권1과 권2이 수록되어 있는 1冊이 분실되어 현재 7冊만이 보존되어 있다. 『홍무정운역훈』 권3~16에 배열되어 있는 운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홍무정운역훈』 76운목]

성조	卷	운목	성조	卷	운목	성조	卷	운목	성조	卷	운목	
평성	1	東	상성	7	董	거성	10	送(9)	입성	14	1	屋(8)
		支			紙			2			寘(15)	
		齊			齊			3			霽(2)	
		魚			語		4	御				
		模			姥		5	暮				
		皆			解		6	泰(5)				
		灰			賄		7	隊(5)				
	3	眞(8)		8	軫		8	震(7)			2	質(4)
		寒(11)		9	旱		9	翰(12)			3	曷(1)
		刪(5)		10	產		10	諫(5)			4	轄(3)
	4	先		11	銑	12	霰	5			屑(1)	
		蕭(1)		12	篠(1)		12	嘯(1)			15	
		爻(1)		13	巧(1)		13	效(2)				
		歌(3)		14	哿(3)		14	箇(1)				
	5	麻(1)	15	馬(3)	15		禡(2)	6	藥(4)			
		遮	16	者	16		蔗					
		陽(4)	17	養(2)	17		漾(7)					
	6	庚(28)	18	梗(12)	13		敬(15)	7	陌(6)			
		尤(1)	19	有(1)			19	宥(1)	16			
		侵(2)	20	寢(3)			20	沁		8		緝(2)
		覃(2)	21	感(2)		21	勘(1)	9		合(2)		
		鹽(1)	22	琰(2)		22	豔(1)	10		葉(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무정운역훈』의 운목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합하여 모두 76운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조의 순서에 의하여 권1에서 권6까지 평성 운목, 권7에서 권9까지 상성 운목, 권10에서 권13까지 거성 운목, 권14에서 마지막 권16까지 입성 운목으로 배열되어 있다. 각 운목에는 검정색 네모칸 하얀 색 글씨로 31자모를 표기하여 소운의 변별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성통해』의 권두에 실려 있는 「洪武韻31字母之圖」를 보면 『홍무정운역훈』의 성모체계는 31자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홍무정운역훈』 31자모]

五音	五行	七音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	全清	全濁
角	木	牙音	見 ㄱ	溪 ㅋ	群 ㄱ	疑 ㅇ		
徵	火	舌頭音	端 ㄷ	透 ㅌ	定 ㄷ	泥 ㄴ		
羽	水	脣重音	幫 ㅍ	滂 ㅍ	並 ㅍ	明 ㅁ		
		脣輕音	非 ㅍ		奉 ㅍ	微 ㅍ		
商	金	齒頭音	精 ㅈ	清 ㅈ	從 ㅈ		心 ㅈ	邪 ㅈ
		正齒音	照 ㅈ	穿 ㅈ	牀 ㅈ		審 ㅈ	禪 ㅈ
宮	土	喉音	影 ㅇ	曉 ㅇ	匣 ㅇ	喻 ㅇ		
半徵	半火	半舌音				來 ㄹ		
半商	半金	半齒音				日 ㄷ		

그런데 각 운목 안에는 자모가 七音[牙音-舌音-脣音-齒音-喉音-半舌音-半齒音]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八“眞”운의 경우를 보더라도 59개 성모로 59개의 소운을 표시하였는데 소운의 순서가 대략의 발음부위는 염두에 둔 듯하지만 매우 비체계적이다.

照진 審신 禪션 日신 淸친 精진 從진 滂  
 궤 幫빈 並뵤 明민 牀진 來린 影인 影훈 泥닌 喻운 見균 見  
 긴 群긴 疑인 溪꾼 曉훈 群꾼 曉힌 照준 穿춘 禪쑤 心  
 순 淸춘 從쑤 邪쑤 來륜 微문 非분 奉뵤  
 匣훈 見균 影훈 曉훈 溪꾼 幫분 滂푼 並뵤 明문 心순 淸

ㄱ 精준 透툐 定뎡 來룬 端둔 照즌 審슨 牀즌 匣ᄇᆞᆫ  
 ㄴ 見근 影ᄇᆞᆫ 疑은

見근	溪근		端둔	透툐	定뎡	精준	透툐	明뎡	非뎡	奉뎡	微뎡	精준	清준	從준	心순					影ᄇᆞᆫ	曉ᄇᆞᆫ	匣ᄇᆞᆫ	來룬		
見근	溪근	群ᄇᆞᆫ											精준		邪ᄇᆞᆫ	照즌	穿ᄇᆞᆫ			群ᄇᆞᆫ	影ᄇᆞᆫ	曉ᄇᆞᆫ	喻은	來룬	
見근			疑은												邪ᄇᆞᆫ		牀즌	審슨	影ᄇᆞᆫ		群ᄇᆞᆫ				
見근	群ᄇᆞᆫ	疑은				泥닌	徹뎡	透툐	非뎡	明뎡			精준	清준	從준	心순	照즌	林ᄇᆞᆫ	喻은	群ᄇᆞᆫ	影ᄇᆞᆫ	曉ᄇᆞᆫ		來룬	日ᄇᆞᆫ

이러한 『홍무정운역훈』의 체계는 실제 한자음을 찾아 사용하기에 참으로 불편했던 것 같다. 『홍무정운역훈』 「서문」에도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 토로하였다.

대저 『홍무정운』은 운을 합하거나 나눈 것은 다 바르게 되었으나 유독 七音의 앞뒤 순서가 맞지 않았다. 그러나 감히 경솔하게 바꿀 수 없어서 이전 것은 그대로 두고, 여러 운에 字母를 분류하여 기입하였으며 각 글자의 앞에는 훈민정음으로 反切을 대신하였다. 속음과 두 가지로 쓰이는 음 또한 몰라서는 안 되므로 해당 글자의 밑에 따로 기입하였다. 만약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대략 주를 달고 그 예를 보였으며, 또 세종께서 지으신 『사성통고』에 따로 첫머리에 붙이고 다시 범례를 실어서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sup>30)</sup>

그리하여 세종은 “見溪群疑~” 七音의 순서로 자모를 밝히고 정음자로 표음한 다음 청탁과 사성을 구분하여 편집한 『사성통고』를 간행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sup>31)</sup> 그러나 『사성통고』도 현전하지 않고 다만 최세진이 지은 『사성통해』의 권말에 있는 「사성통고범례」와 『사성통해』 「서문」에 들어 있는 『사성통고』에 대한 기사로 그 편찬의 유래와 내용의 일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성통고』의 편찬경위를 통해 『홍무정운역훈』의 「범

30) 『홍무정운역훈』 「서문」: “夫洪武韻用韻併拆, 悉就於正, 而獨七音先後, 不由其序, 然不敢輕有變更, 但仍其舊而分入字母 於諸韻, 各字之首, 用訓民正音, 以代反切, 其俗音兩用之音, 又不可以不知, 則分注本字之下, 若又有難通者, 則略加註釋, 以示其例, 且以世宗所定四聲通攷, 別附之頭面, 復著凡例, 爲之指南.”

31) 이득춘 편, 『조선어 역사언어학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1. 311쪽.

례」가 『사성통고』의 「범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홍무정운역훈』의 「범례」의 전모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현재 전하지 않는 권1과 권2를 제외하고 권3부터 권16까지 표기되어 있는 문백이독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권7과 권8인 상성운의 운목에 표기된 한글 표기음이 잘라내졌고, 밑에 작게 표기된 글자도 식별하기가 어려워져서 이 또한 부득이 제외시켰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연구대상을 삼은 『홍무정운역훈』 문백이독의 글자는 222개인데 위의 [도표1]에서 각 운목 옆의 괄호안의 숫자는 속음이 기재된 숫자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222개의 문백이독 글자가 『홍무정운역훈』의 문백이독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략의 정황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羅常培의 『廈門音系』에서 제시한 문백이독 연구방법에 의거하여<sup>32)</sup> 『홍무정운역훈』 문백이독의 목록을 정리한 후, 「사성통고범례」 각 조항과 최세진의 『사성통해』 「범례」 등을 참조하여 문언음[정음]과 백화음[속음]의 이독되는 현상을 해석하였다.

## 2) 『홍무정운역훈』의 문백이독에서 성모가 다른 경우

『홍무정운역훈』의 문백이독에서 성모의 경우, 백화음[속음]에서의 疑母의 소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문언음[정음] ㅇ / 백화음[속음] 〇”로 표기된 문백이독의 목록이다.

『훈민정음해례』 「제자해」에서도 “다만 어금니 소리의 〇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아서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ㅇ와 비슷하여 운서에서도 疑母와 喻母와 비슷하여 서로 혼용되는 예가 있다.”고 하여<sup>33)</sup> 疑母와 喻母가 음이 비슷하여 혼용되는 예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사성통고』 「범례 제6조」에서는 “본운(홍무정운)에서는 疑母와 喻母의 여러 글자들

32) 周長揖, 「重讀《廈門音系》」, 『方宮』 1999年 第3期 176-180쪽.

33) 『훈민정음해례』 「제자해」: “唯牙之〇,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정음	속음	성조	권	운	字母		정음	속음	성조	권	운	字母
振	운	은	平	3	8眞	疑	敵	:얄	:얄	上	9	13巧	疑
品	얄	얀	平	6	21覃	疑	我	:어	:어	上	9	14哿	疑
吟	:임	:인	上	9	20寢	疑	妮	:위	:위	上	9	14哿	疑
頷	:얄	:안	上	9	21感	疑	雅	:야	:야	上	9	15馬	疑
陳	:염	:연	上	9	22琰	疑	瓦	:와	:와	上	9	15馬	疑
岸	:언	:안	去	12	9翰	疑	仰	:양	:양	上	9	17養	疑
仵	:인	:잉	入	14	2質	疑	偶	:을	:을	上	9	19有	疑
兀	:우 ㄷ	:우 ㄷ	入	14	2質	疑	匪	:애	:애	去	11	6泰	疑
藜	:얀	:양	入	14	4轄	疑	愁	:인	:인	去	11	8震	疑
域	:획	:잉	入	16	7陌	疑	玩	:원	:원	去	12	9翰	疑
阮	위 ㄴ	윈	平	3	9寒	疑	亂	:완	:완	去	12	10諫	疑
顏	얀	얀	平	3	10刪	疑	鴈	:얀	:얀	去	12	10諫	疑
虺	얀	얀	平	3	10刪	疑	樂	:얄	:얄	去	12	13效	疑
敖	아 ㅍ	알	平	4	13爻	疑	傲	:알	:알	去	12	13效	疑
訛	위	위	平	4	14歌	疑	餓	:어	:어	去	12	14箇	疑
牙	야	야	平	5	15麻	疑	訝	:야	:야	去	13	15禡	疑
隅	을	을	平	6	19尤	疑							

이 서로 섞이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제 해당 글자 아래 옛 운을 좇아서 喻母인 경우는 단지 〇母라 쓰고, 疑母인 경우는 단지 〇母라고 써서 분별시킨다.”라고 하여<sup>34)</sup> 『홍무정운』에서는 疑母와 喻母가 혼용되었더라도 『홍무정운역훈』의 정음에서는 특별히 疑母와 喻母를 확실히 구분하겠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疑母가 소실되어 모두 喻母로 읽고 있어 속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34) 『사성통고』 「범례 제6조」: “本韻疑喻母諸字多相雜, 今於逐字下 從古韻 喻則只書母 疑則只書母以別之.”

그 외 『홍무정운역훈』의 문백이독에서 성모가 다른 경우는 전탁음 성모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홍무정운역훈』 「서문」에는 “全濁인 글자의 平聲은 次淸과 가깝게 되었고, 상·거·입성은 全淸과 가깝게 되었다. 세상의 쓰임이 이와 같지만 역시 이렇게 변화한 까닭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언급하였는데<sup>35)</sup> 『사성통고』 「범례 제2조」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다. “전탁의 상성, 거성, 입성의 자는 지금 한인이 사용하는 바로는 초성에 있어서 전청음에 가까우나 아직은 각각 청탁의 분별이 있으며, 오직 평성의 자는 초성에 있어서 차청에 가깝다.”<sup>36)</sup> 아마도 신숙주는 전탁성모가 훗날 모두 무성음화[淸化]가 되는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무정운역훈』의 문언음[정음]과 백화음[속음]에는 모두 전탁 성모가 계속 보존되어 있고, 전탁성모인 문언음[정음]이 백화음[속음]에서 전청이나 차청으로 바뀌는 예가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많지 않다. 아마도 당시 백화음[속음]에서 전탁성모가 무성음화되는 과정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언음[정음]		백화음[속음]		성조	卷	韻	字母
關	· 백	ㅂ	· 평	ㅍ	入	16	7 陌	並
挺	: 명	ㅌ	: 탕	ㅊ	上	9	18 梗	定
仆	: 황	ㅎ	: 굉	ㄱ	上	9	18 梗	匣
蹀	: 화		: 파	ㄱ	上	9	15 馬	匣
桓	훤		원	ㅇ	平	3	9 寒	匣

### 3) 『홍무정운역훈』의 문백이독에서 운모가 다른 경우

본고에서는 운모의 차이를 운미가 없는 음성운, 비음 운미(-m, -n, -ng)의

35) 『홍무정운역훈』 「서문」: “四聲爲平上去入, 而全濁之字, 平聲近於次淸, 上去入近於全淸, 世之所用如此, 然亦不知其所以至此也.”

36) 『사성통고』 「범례 제2조」: “全濁上去入三聲之字, 今漢人所用, 初聲與淸聲相近, 而各有淸濁之別, 濁平聲之字, 初聲與次淸相近.”

양성운, 폐쇄음 운미(-p, -t, -k)의 입성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음성운 운모

『사성통고』 「범례 제9조」에는 음성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릇 자음에는 반드시 종성이 있어야 하므로 평성의 支, 齊, 魚, 模, 皆, 灰 등 글자도 마땅히 후음 〇로써 종성을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운들의 종성이 입성의) 아음, 설음, 순음으로 끝나는 종성의 명백함과 같지 않고 또 〇로 종성을 삼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나의 소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성과 거성의 경우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sup>37)</sup>

『홍무정운역훈』과 『사성통고』가 음성운에 있어서 『동국정운』과는 달리 종성 -〇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실제 음리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홍무정운역훈』에서 문백이독되는 음성운의 목록이다.

	문언음[정음]		백화음[속음]		성조	卷	韻	字母
蕭	설	꺄	샬	샬	平	4	12蕭	心
篠	:설		:샬		上	9	12篠	心
嘯	·설		·샬		去	12	12嘯	心
阿	어	가	하	하	平	4	14歌	影
那	너		나		平	4	14歌	泥
婀	:어		:하		上	9	14哿	影
寘	·지	ㅣ	·질	질	去	10	2寘	照
侍	·씨		·쑤		去	10	2寘	禪
二	·시		·술		去	10	2寘	日
智	·지		·질		去	10	2寘	照

37) 『사성통고』 「범례 제9조」: “凡字音必有終聲 如平聲支齊魚模皆灰等韻之字 當以喉音〇爲終聲 而今不爾者 以其非如牙舌唇終之爲明白 且雖不以〇補之 而自成音爾 上去諸韻同.”

治	·찌		·찹		去	10	2寘	牀
胎	·치		·찰		去	10	2寘	穿
試	·시		·슌		去	10	2寘	審
世	·시		·실		去	10	2寘	審
掣	·치		·찰		去	10	2寘	穿
恣	·즈		·즌		去	10	2寘	精
翅	·츠		·츄		去	10	2寘	穿
四	·스		·슌		去	10	2寘	心
自	·쯔		·쑤		去	10	2寘	從
廁	·츠		·츄		去	10	2寘	穿
次	·츠		·츄		去	10	2寘	清
霽	·계	꺨	·지	ㅣ	去	10	3霽	精
寐	·메	꺨	·미	ㅡ	去	10	3霽	明
大	·때	꺨	·따	ㅏ	去	11	6泰	定
睚	·애	꺨	·애	ㅑ	去	11	6泰	疑
戒	·개	꺨	·계	꺨	去	11	6泰	見
措	·캐	꺨	·계	꺨	去	11	6泰	溪
械	·혜	꺨	·혜	꺨	去	11	6泰	匣
叡	·위	꺨	·의	꺨	去	11	7隊	喻
配	·뵤	꺨	·피	꺨	去	11	7隊	滂
旆	·뵤	꺨	·뵤	꺨	去	11	7隊	並
背	·뵤	꺨	·비	꺨	去	11	7隊	幫
妹	·뵤	꺨	·미	꺨	去	11	7隊	明

위의 음성운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거성 寘운의 문백이독이다. 거성 寘운에서 문언음[정음] “ㅣ / ㅡ”가 백화음[속음]에서는 “ㅏ / ㅑ”로 읽혔다. 거성 寘운과 상응하는 평성 支운과 상성 紙운 자료가 분실되어 본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자료가 보존되어 참고할 수 있었다면 더욱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寘운의 문백이독에 관하여 『사성통고』 「범례」에는 별 언급이 없지만, 훗날 최세진은 『사성통해』 “支紙寘”운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세 운 내의 齒音자를 소리 낼 때는 입과 혀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로써 종성을 삼은 연후에야 정확한 발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賞”자는 “중”로, “知”자는 “징”으로 발음되며, 이하의 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음과 순음은 그렇지 않다.<sup>38)</sup>

최세진은 『翻譯老乞大朴通事』 「凡例」의 “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條에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四聲通攷』의 “賞”자의 음은 “즈”인데, 註를 달아 말하길 “俗音 中”이라고 하였다. 韻內 齒音 글자들은 입과 혀의 모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로써 종성을 삼은 연후에야 그 미묘함을 다 나타낼 수 있다. …… 만약 △를 제거한다면 현실음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正音에 △를 가하여 좌측에 둔다. 학자들은 반드시 正音에 -△를 가하여 발음하길 바라며, 그런 후에야 현실음에 부합하게 된다.<sup>39)</sup>

최세진은 “賞”자 등 齒音의 支韻 글자들이 현실 중국어 발음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四聲通攷』의 注音처럼 終聲에 -△을 덧붙여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물론 신숙주가 寘운 백화음[속음]의 종성에 “△”로 표음한 것도 현실 음가를 그대로 채록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종시기의 신숙주(1417-1475)와 중종시기의 최세진(1473-1542)간에는 또한 50년 이상 시간적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신숙주가 음운변화의 조짐을 감지를 하였더라도 언급하지 않은 항목은 최세진 시대에 와서 그 음운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사성통해』 「범례」 및 『노걸대박통사범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홍무정운역훈』에는 음성은 ‘평성 歌운·상성 駕운’의 문언음[정음] “ㄴ”은 백화음[속음]에서 “ㄴ”로 읽혔고, ‘거성 泰운’의 문언음[정음] “ㅈ”은

38) 『사성통해』 “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初聲口舌不變，而以△爲終聲，然後可盡其妙，如賞字呼爲중，知字呼爲징，餘倣此，牙音唇音則不。”

39) 『翻譯老乞大朴通事』 「凡例」 “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條：“通攷賞字音즈註云俗音中，韻內齒音諸字口舌不變，故以△爲終聲，然後可盡其妙。今按齒音諸字若從通攷加△爲字，……而 又恐其直從去△之聲，則必不合於時音。今書正音加△之字於右。使學者必從正音用△作聲，然後可合於時音矣。”

백화음[속음]에서 “꺠”로 읽혔으며, ‘거성 隊운’의 문언음[정음] “꺠”는 백화음[속음]에서 “ㄱ”로 읽혔음이 기록되어 있다.

(2) 양성운 운모

본고에서 정리한 『홍무정운역훈』 문백이독의 양성운 운모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문언음[정음]		백화음[속음]		성조	卷	韻	字母
文	문	문	문	문	平	3	8眞	微
芬	분		분		平	3	8眞	非
汾	뵤		뵤		平	3	8眞	奉
奔	분		분		平	3	8眞	幫
耿	푼		푼		平	3	8眞	滂
盆	뵤		뵤		平	3	8眞	並
門	문		문		平	3	8眞	明
抵	운		운		平	3	8眞	疑
奔	·분		·분		去	11	8震	幫
問	·문		·문		去	11	8震	微
分	·뵤		·뵤		去	11	8震	奉
噴	·푼		·푼		去	11	8震	滂
盆	·뵤		·뵤		去	11	8震	並
問	·문		·문		去	11	8震	明
寒	헌		헌		헌	헌	平	3
看	컨	컨		平	3		9寒	溪
干	건	건		平	3		9寒	見
安	헌	헌		平	3		9寒	影
曠	헌	헌		平	3		9寒	曉
翰	·헌	·헌		去	12		9翰	匣
翰	·건	·건		去	12		9翰	見

漢	·현		·한		去	12	9翰	曉
看	·킨		·칸		去	12	9翰	溪
按	·런		·한		去	12	9翰	影
岸	·언		·안		去	12	9翰	疑
槃	뻘		뻘	년	平	3	9寒	並
潘	뻘		뻘		平	3	9寒	滂
般	뻘		뻘		平	3	9寒	幫
瞞	뻘		뻘	년	平	3	9寒	明
畔	·뻘		·뻘		去	12	9翰	並
縵	·뻘		·뻘		去	12	9翰	明
判	·뻘		·뻘	년	去	12	9翰	滂
半	·뻘	년	·뻘	년	去	12	9翰	幫
窵	·킨	년	·킨	년	去	12	9翰	清
攀	관	년	뻘	년	平	3	10刪	滂
翻	뻘		뻘		平	3	10刪	非
煩	뻘		뻘		平	3	10刪	奉
番	·뻘		·뻘	년	去	12	10諫	非
販	·뻘		·뻘		去	12	10諫	非
飯	·뻘		·뻘		去	12	10諫	奉
霜	상		상		平	5	17陽	審
瘡	창		창		平	5	17陽	穿
莊	장		장		平	5	17陽	照
牀	짱		짱		平	5	17陽	牀
壯	·장		·장		去	13	17養	照
創	·창		·창		去	13	17養	穿
撞	·장		·장		去	13	17養	照
滌	·짱		·짱		去	13	17養	牀
淙	·상		·상		去	13	17養	審
靚	·창		·창		去	13	17養	穿
況	·황	년	·황	년	去	13	17養	曉
仰	:양	년	:양	년	上	9	17養	疑

爽	:상	양	:상	양	上	9	17養	審
庚	강		강		平	6	18庚	見
吭	강		강		平	6	18庚	溪
盲	망		망		平	6	18庚	明
橫	형		형		平	6	18庚	匣
生	성		성		平	6	18庚	審
烹	평		평		平	6	18庚	滂
彭	병		병		平	6	18庚	並
崢	창		승		平	6	18庚	穿
儻	정		정		平	6	18庚	牀
崢	창		승		平	6	18庚	穿
轟	형		홍		平	6	18庚	曉
爭	정		중		平	6	18庚	照
能	능		능		平	6	18庚	泥
綁	빙		빙		平	6	18庚	幫
登	딩		등		平	6	18庚	端
騰	팅		똥		平	6	18庚	定
稜	링		릉		平	6	18庚	來
憎	성		승		平	6	18庚	心
增	징		증		平	6	18庚	精
繪	평		쥬		平	6	18庚	從
桓	강		강		平	6	18庚	見
冷	:링		:릉		上	9	18梗	來
省	:성		:승		上	9	18梗	審
等	:딩		:등		上	9	18梗	端
猛	:망		:몽		上	9	18梗	明
更	·강		·궁		去	13	18敬	見
榜	·빙		·붕		去	13	18敬	幫
孟	·망	·몽	去	13	18敬	明		
諍	·정	·중	去	13	18敬	照		
甌	·창	·중	去	13	18敬	精		
嶝	·딩	·등	去	13	18敬	端		

鄧	·땡		·땡		去	13	18敬	定
珊	·빙		·붕		去	13	18敬	幫
贈	·땡		·땡		去	13	18敬	從
瓦	·깁		·깁		去	13	18敬	見
稜	·링		·룽		去	13	18敬	來
贈	·칭		·충		去	13	18敬	淸
亨	형		형	ㅇ	平	6	18庚	曉
梗	:깁		:깁	ㅇ	上	9	18梗	見
肯	:깁		:깁	ㄱ	上	9	18梗	溪
仍	싱	ㅇ	신	ㄱ	平	6	18庚	日
認	·싱		·신		去	13	18敬	日
行	형	ㅇ	형	ㅇ	平	6	18庚	匣
根	깁		깁		平	6	18庚	牀
解	싱		승		平	6	18庚	心
省	:싱		:승		上	9	18梗	心
傾	깁	ㅇ	깁	ㅇ	平	6	18庚	溪
瓊	깁		깁		平	6	18庚	群
頃	:깁		:깁		上	9	18梗	溪
瑩	:형		:형		上	9	18梗	影
瑩	·형		·형		去	13	18敬	影
榮	윙	ㅇ	윙	ㅇ	平	6	18庚	喻
永	:윙		:윙		上	9	18梗	喻
詠	·윙		·윙		去	13	18敬	喻
侵	침	ㄱ	친	ㄱ	平	6	20侵	淸
吟	임		인		平	6	20侵	疑
寢	:침		:친		上	9	20寢	淸
瀋	:침		:신		上	9	20寢	穿
吟	:임		:인		上	9	20寢	疑
嶺	얌	ㄱ	얌	ㄱ	平	6	21覃	疑
覃	땡	ㄱ	땡	ㄱ	平	6	21覃	定
感	:감		:간		上	9	21感	見
頷	:암		:안		上	9	21感	疑

勸	·갑		·칸		去	13	21勸	溪
鹽	염	꺠	연	년	平	6	22鹽	喻
琰	:염		:연		上	9	22琰	喻
冪	:염		:연		上	9	22琰	疑
豔	·염		·연		去	13	22豔	喻
縱	·중	꺡	·중	꺡	去	10	1送	精
衆	·중		·중		去	10	1送	照
仲	·중		·중		去	10	1送	牀
頌	·송		·송		去	10	1送	邪
從	·중		·중		去	10	1送	從
共	·공		·공		去	10	1送	群
恐	·공		·공		去	10	1送	溪
供	·공		·공		去	10	1送	見
恫	·중		·중		去	10	1送	穿

『홍무정운역훈』에서 ‘평성 眞운·거성 震운’의 문언음[정음] “근”은 백화음[속음]에서 “근”로 읽혔다. ‘평성 寒운·거성 翰운’은 개구와 합구로 나뉘어져 개구 문언음[정음] “근”은 백화음[속음]에서 “근”으로 읽혔고, 합구 문언음[정음] “근”은 백화음[속음]에서 “근/근”로 읽혔다. 刪운도 개구와 합구로 나뉘어져서 개구 문언음[정음] “근/근”은 백화음[속음]에서 “근”, 합구 문언음[정음] “근”은 백화음[속음]에서 “근”으로 읽혔다. ‘평성 陽운·거성 養운’의 경우도 문언음[정음] “강”이 백화음[속음]에서는 “강”으로 읽혔고, ‘평성 庚운·거성 敬운’은 개구와 합구 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으로 구분되는데, 2등 개구의 문언음[정음] “강”은 백화음[속음]에서 “강”, 2등의 합구의 문언음[정음] “강”은 백화음[속음]에서 “강/강”, 3등 개구의 문언음[정음] “강”은 백화음[속음]에서 “강”로 읽혔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항은 ‘평성 庚·상성 梗·거성 敬韻’에서 “ㅇ”운미와 “ㄴ”운미의 대립의 예가 보인다.

예자	正音	俗音	聲調	卷	韻	字母
肯	:깁	:큰	上	9	18梗	溪
仍	싱	신	平	6	18庚	日
認	·싱	·신	去	13	18敬	日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ㄹ운미가 ㄴ운미와 섞이는 것은 근대 한어의 음운특징이기도 하다. 백화음[속음]은 확실히 북방어의 음운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다.

양성운에서 가장 주의를 끄는 문백이독은 ‘閉口韻의 소실’로서 문언음[정음]에선 “-ㄱ” 운미로 읽히지만 백화음[속음]에서는 “-ㄴ” 운미로 읽히는 것이다. 『사성통고』 「범례」에는 이와 관련 내용의 조항이 없지만, 최세진의 『사성통해』 「범례 제24조」에는 “여러 운에서 종성 -ㄴ, -ㄱ, -ㅇ의 발음은 처음에는 서로 섞이지 않아서 줄곧 侵覃鹽이 ㄱ종성으로 발음되었으나, 중국의 세간에서는 모두 ㄴ으로 발음되고 있다. 따라서 眞(-ㄴ)과 侵(-ㄱ), 刪(-ㄴ)과 覃(-ㄱ), 先(-ㄴ)과 鹽(-ㄱ) 등의 어음이 대부분 서로 뒤섞이었다.”라고<sup>40)</sup> 현실 어음에서의 음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홍무정운역훈』의 문백이독을 통해 볼 때, 신숙주 시대에 이미 문언음[정음]에서 “-ㄱ 운미”로 읽던 글자가 대부분 세간에서는 “-ㄴ 운미”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 (3) 입성운 운모

신숙주 시기에 입성운 운모의 문백이독은 차이가 가장 뚜렷하였던 듯하다. 신숙주는 『홍무정운역훈』 「서문」에서 세간에서 입성자가 읽히지 않는 점에 대해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야 한 글자의 음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이치

40) 『사성통해』 「범례 제24조」: “諸韻終聲ㄴㄱㅇ之呼初不相混, 而直以侵覃鹽合口終聲, 漢俗皆呼爲ㄴ, 故眞與侵 刪與覃 先與鹽之音多相混矣.”

인데, 入聲字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대체로 종성을 쓰지 않으니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sup>41)</sup>

그리고 『사성통고』 「범례 제8조」에 입성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술하였는데 입성운에 대한 준칙을 밝혀놓았다고 할 수 있다.

입성인 모든 운의 종성은 지금 남방음은 너무 분명함에 치우치고 북방음은 너무 느슨하여 좋지 않다. 몽고운 역시 북방음에 따랐으므로 종성을 쓰지 않았으며, 황공소의 운회에서도 길운의 ‘颯, 卒’ 등의 글자가 屋韻의 ‘匆’자모에 속해있고, 合韻의 ‘閤, 榼’ 등의 글자는 葛韻의 ‘葛’자모에 속해 있다. 아음, 설음, 순음이 섞여 구별되지 않았으니, 이것 또한 종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sup>42)</sup>

평상거입의 사성에 있어서는 비록 청탁과 완급의 차이가 있지만 그 종성이 일찍이 같은 적이 없었다. 하물며 입성이 입성 글자가 되는 까닭은 아음(ㄱ), 설음(ㄷ), 순음(ㄴ)의 전청음이 종성이 되어 소리가 촉급하게 되므로, 더욱이 종성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sup>43)</sup>

본 운서를 만들면서 같은 것은 합치고 다른 것은 나누었으니, 입성 운에 있어서도 아음, 설음, 순음의 종성은 모두 구별하여 섞지 않았다. 이제 ㄱ, ㄷ, ㄴ로 종성을 삼으니 바로 ㄱ, ㄷ, ㄴ을 그대로 발음하게 되면 이른바 남방음에 가깝게 된다. 약간 미미하게 소리를 내어 급하게 마치되, 지나치게 명백하게 하지 않아야 옳은 것이다. 또 현재 속음에서는 종성을 사용하지 않으나, 평상거성의 소리가 늘어지는 정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입성인) 속음의 종성은 모든 운에 후음의 전청자인 ㅎ을 사용하였지만 藥韻에는 순경음의 전청자인 ㅁ을 사용하여 구별하였다.<sup>44)</sup>

41) 『洪武正韻譯訓·序文』: “四聲爲平上去入, 而全濁之字, 平聲近於次清, 上去入近於全清, 世之所用如此, 然亦不知其所以至此也, 且有始有終, 以成一字之音, 理之必然而獨於入聲, 世俗率不用終聲, 甚無謂也.”

42) 『사성통고』 「범례 제8조」: “入聲諸韻終聲, 今南音傷於太白, 北音流於緩弛, 蒙古韻亦因北音, 故不用終聲, 黃公紹韻會, 入聲如而質韻颯卒等字, 屬屋韻匆字母, 以合韻閤榼等字, 屬葛韻葛字母之類, 牙舌唇之音混而不別, 是亦不用終聲也.”

43) 『사성통고』 「범례 제8조」: “平上去入四聲, 雖有清濁緩急之異, 而其有終聲則固未嘗不同, 況入聲之所以爲入聲字, 以其牙舌唇之全清, 爲終聲而促急也, 其尤不可不用終聲也, 明矣.”

즉 『몽고자운』이나 『운회』에서는 입성의 종성을 쓰지 않았거나 “ㄷ”종성을 “ㄱ”종성과 혼동하고 “ㄴ”종성을 “ㄷ”종성과 혼동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아 “ㄱ” “ㄷ” “ㄴ”종성을 분명히 구별해놓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종성을 너무 분명하게 발음하면 남방음처럼 되므로 약하게 발음해야 하며 북방음인 백화음[속음]에서는 그것들이 잘 구별되지 않으므로 “ㅇ”으로 종성을 삼으며 藥韻의 경우에만 “빙” 종성을 쓰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홍무정운역훈』 입성운의 문백이독 목록이다.

	문언음[정음]		백화음[속음]		성조	卷	韻	字母
屋	· 록	ㄱ	· 롱	ㅇ	入	14	1屋	影
夙	· 속		· 숭		入	14	1屋	心
夔	· 죽		· 중		入	14	1屋	精
叔	· 속		· 숭		入	14	1屋	審
祝	· 축		· 충		入	14	1屋	穿
祝	· 죽		· 중		入	14	1屋	照
逐	· 죽		· 중		入	14	1屋	牀
足	· 죽		· 중		入	14	1屋	精
陌	· 막		· 맹		入	15	7陌	明
關	· 뺨		· 평		入	16	7陌	並
逆	· 익		· 잉		入	16	7陌	喻
赫	· 혁		· 형		入	16	7陌	曉
額	· 익		· 윙		入	16	7陌	喻
域	· 윝		· 잉		入	16	7陌	疑
却	· 각		· 경		入	15	6藥	溪
質	· 진		· 징		入	14	2質	照
率	· 슨	· 썩	入	14	2質	審		
乞	· 인	· 잉	入	14	2質	疑		

- 44) 『사성통고』 「범례 제8조」: “本韻之作併同析異而入聲諸韻牙舌脣終聲, 皆別而不雜, 今以ㄱ ㄷ ㄴ 爲終聲, 然直呼以ㄱㄷㄴ則又似所謂南音 但微用而急終之不至太白可也 且今俗音雖不用終聲 而不至如平上去之緩弛 故俗音終聲 於諸韻用喉音全清○藥韻用脣輕全清빙以別之.”

兀	·은		·응		入	14	2質	疑
曷	·헐		·형		入	14	3曷	匣
轄	·핍		·향		入	14	4轄	匣
藥	·얀		·양		入	14	4轄	疑
伐	·판		·팡		入	14	4轄	奉
屑	·션		·성		入	15	5屑	心
藥	·약	ㄱ	·얄	ㄹ	入	15	6藥	喻
朔	·삭		·살		入	15	6藥	審
妮	·착		·찰		入	15	6藥	穿
緝	·칩	ㅂ	·칭	ㅇ	入	16	8緝	清
入	·십		·웅		入	16	8緝	日
合	·합		·형		入	16	9合	匣
閤	·갑		·경		入	16	9合	見
葉	·엽		·영		入	16	10葉	喻

중국의 북방어에서 입성운미는 근대 이후 거의 탈락되는데 『홍무정운역훈』 백화음[속음]에서의 입성운은 입성운미가 단계적으로 탈락되는 당시의 어음 상황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	
정음	속음	좌음	우음
ㄱ	ㅇ	ㅇ	ㅇ
ㄱ	병	ㄱ/ㄱ	ㅇ
ㄷ	ㅇ	ㅇ	ㅇ
ㅂ	ㅇ	ㅇ	ㅇ

“藥”운의 경우, 근대 이후 모음 운미 -u로 변화하였는데 백화음[속음]의 중성 “병”는 “ㅇ”와는 차별되는 모음 운미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藥朔妮”운의 백화음[속음]에서는 “ㄹ”의 운미를 사용하였다. 아마도 문언음 [정음] 입성운미 “-ㄱ, -ㄷ, -ㅂ”이 전청음 계열이므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해 백화음[속음]의 운미를 “병”라고 한 듯하다.

藥	·약	ㄱ	·얹	ᄃ	入	15	6藥	喻
朔	·삭		·살		入	15	6藥	審
妮	·착		·찰		入	15	6藥	穿

#### 4) 『홍무정운역훈』 문백이독에서 성조가 다른 경우

『사성통고』 「범례 제10조」에는 “무릇 자음의 사성은 방점으로서 구분한다. 평성은 점이 없고, 상성은 두 점, 거성은 한 점을 찍으며, 입성 역시 한 점을 찍는다.”<sup>45)</sup>라고 성조의 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백화음[속음]에서의 성조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홍무정운역훈』의 문백이독에서 문언음[정음]과 백화음[속음]의 성조가 불일치하는 예가 하나도 없었다.

당시 북방지역의 근대 한어는 평성자 중에서 무성음[청음]인 성모는 음평으로 변하고 유성음[탁음]인 성모는 양평으로 변화하여 평성자가 음평과 양평으로 분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唐代부터 시작되어 宋代의 문헌자료에서도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元代 周德清의 『중원음운』에서 확실히 입증될 수 있다. 그 외 근대 한어 성조의 특징으로 상성의 전탁성모가 거성으로 변한 음운현상이라든지, 입성이 평상거성으로 나뉘어 변한 것은 세간에서 읽혀졌을 변화양상이었을 터인데 『홍무정운역훈』의 백화음[속음]에는 이러한 성조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45) 『사성통고』 「범례 제10조」: “凡字音, 四聲以點別之, 平聲則無點, 上聲則二點, 去聲則一點, 入聲則亦一點.”

#### 4. 맺음말

“문백이독”이란 한자에 文讀과 白讀의 두 가지 이상의 독음이 있는 현상으로 현대 중국방언연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전통적으로 문백이독에서 “문”은 “글”이라는 의미로서 특히 고문을 읽는데 사용되는 문독을 가리키고, “백”은 “말”이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백독을 말한다. 중국 대부분의 방언에 문백이독이 존재함을 깨닫고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이다.

물론 이전의 운서, 예를 들어 『古今韻會舉要』의 字母韻을 관찰하면 13세기 무렵에 이미 중국에서 운서음(문언음)과 현실음(백화음)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그러나 당시에는 문언음의 권위가 막강하였으므로 당시 문인들은 백화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54운동 이후 문언음의 권위가 실추되고 백화음의 지위가 격상되면서 한자에 두 개의 한자음, 文白異讀을 비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백이독은 약 500년 전에 조선의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이미 연구된 바 있다. 세종과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자마자 바로 『홍무정운』의 역훈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중국에 두 가지 글자음이 존재하고 통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세종은 사대부 지식층 문인들과의 소통 도구로서 문언음[정음]을 채택하였고, 또한 연경(현 북경) 지역의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백화음[속음]을 수집하였다. 왜 당시에는 문언음과 백화음이 통용되었을까?

당시 명대는 韻書史上 최고의 흥성기였다.<sup>47)</sup> 명 태조 홍무제는 樂韶鳳, 宋

46)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47) 명대 편찬된 운서만 116여종인데 『中國古籍善本書目』과 『文字音韻訓詁知見書目』에 수록된 운서가 약 72종이고, 『文淵閣書目』·『晁氏寶文堂書目』·『澹生堂藏書目』·『萬卷堂書目』·『明史藝文志』 등에는 실전된 운서의 서목을 44여종 찾아볼 수 있다. 甯忌浮(2009), 『漢語韻書史』, 上海人民出版社. 13쪽.

濂, 王僕 등 15명의 문신들에게 『洪武正韻』(1373)을 편찬하도록 하여 문언음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홍무정운』 「서문」에 “첫째로 中原의 雅音으로 기준을 정하였는데 다시 방언에 얽매어 옛날과 오늘날의 음이 통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壹以中原雅音爲定, 復恐拘於方言, 無以達於上下)”라고 명시하였듯이 『홍무정운』은 시공을 초월하여 널리 사용되는 이상적인 문언음 체계를 지향하였다. 다시 말해, 『홍무정운』에서 추구하였던 글자음은 왕도의 음이 근간이 되었다라든가 고어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 각지의 방언음도 도입되어 절충적이기도 하고 인공적이기도 하여 실제 구어음과 일치하지 않을수록 더욱 신뢰가 가는 신비스러운 음이었던 것이다.

당시 사대부 지식층 선비들과 교류하기 위해선 이러한 문언음의 학습이 필수였고 실제 중국어[漢語]에는 서툴렀던 신숙주는 요동의 황현을 방문할 때는 통역사 孫壽山을 대동하였고, 중국 사신 예겸과 사마순을 영접하는 자리에는 통역사 孫壽山과 林效善과 참석하여 『홍무정운』의 문언음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숙주는 명대의 사대부 유학자들과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신숙주 문집 『보한재집』에는 황현이 신숙주에게 “希賢”의 호를 지어주면서 쓴 글 이외에도 예겸<sup>48)</sup>의 글과 사마순<sup>49)</sup>의 글도 전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홍무정운역훈』에 15세기 연경(현 북경) 지역의 문백이독을 최초로 채록하였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홍무정운역훈』은 문언음과 백화음이 공존하였던 당시의 시대의 문화상을 충실히 담아낸 걸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숙주는 정확한 문언음을 채록하기 위해 13차례나 요동의 황찬을 찾아가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또 중국사신으로 온 유학자 예겸과

48) 『保閑齋集』 「附錄」 「題希賢堂卷[倪謙]」: “高山殊可仰。景行還可行。涉遠必由邇。登崇自卑升。維我古先聖。恒用大爲程。群賢務進德。志期先聖并。藩邦有申詳。嗜學博且精。藏修處華屋。揭以希賢名。顏淵彼何人。逸駕宜同憑。舉武苟不寘。脫近游高明。”

49) 『保閑齋集』 「附錄」 「題希賢堂卷[司馬詢]」: “聖域未易至。賢德士可希。希之果何似。動靜一敬持。持敬固有道。始終在弗移。私欲日以淨。天理日以躋。明珠出游滓。塵鏡生光輝。超然脫凡俗。賢者同一歸。卓哉彼先覺。顏孟誠吾師。”

사마순에게 예를 다 갖추어 문언음에 대해 문의하였다. 그리고 연경(오늘날의 북경) 지역을 7, 8차례나 방문하고 각계각층에서 널리 사용되는 백화음을 채록하여 완성도가 높은 역작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학자들은 고대의 어음자료를 당시 음운 재구에 필요한 어음자료로만 간주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였던 편견을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15세기의 문백이독의 시대상을 충실하게 반영해낸 『홍무정운역훈』의 학술적 가치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강신항(2000), 『한국의 운서』, 태학사.
- 강신항(2003), 『韓漢音韻史 研究』, 태학사.
- 강신항(2003),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무림, 『홍무정운역훈(2006)』, 신구문화사.
- 박현규(1990), 『『홍무정운』의 제본에 대한 조사연구』, 단국한문학회: 『한문학논집』 제8집.
- 배은한(2002), 『『洪武正韻』, 『中州音韻』 所反映全濁上聲字的演變類型』, 중국어 문논역학회: 중국어문논역총간, 10호.
- 배은한(2005), 『洪武正韻兩種版本以及四聲通解之分韻體系』, 한국중국언어연구회: 중국언어연구 20호.
- 심소희(2011), 『『홍무정운·서』를 통한 정음관 고찰』, 한국중국언어학회: 『중국언어연구』 제35집.
- 이영월, 『『四聲通解』를 통한 早期官話 연구』, 延世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은봉(2003), 『중국고대사상의 원형을 찾아서』, 소나무.
- 이재돈, 『사성통해』에 반영된 16세기 중국어 음계연구』, 中國語文學誌, Vol.1 1994
- 이종구(2003), 『『洪武正韻』과 『西儒耳目資』의 관계 및 音韻變化』, 한국중어중문학회: 중어중문학, 제33호.
- 정경일(2002), 『한국운서의 이해』, 아카넷.
- 주성일(2009), 『『四聲通解』凡例考(1)』, 中國文學研究, Vol.38.
- 주성일(2009), 『『四聲通解』凡例考(2)』, 中國文學研究, Vol.39.
-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陰聲韻의 변화』, 中國文學研究, Vol.45, 2011.
- 허혜정, 『朝鮮朝 韻書의 獨自性 研究』, 中央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7
- 唐作藩(1993), 『音韻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 濮之珍(1997), 『中國語言學史』, 上海古籍出版社.
- 宋廉 등(1973), 『洪武正韻』, 亞細亞文化史.
- 汪壽明(1986), 『歷代漢語音韻學文選』, 上海古籍出版社.
- 殷南根 著 · 이동철 역(2000), 『오행의 새로운 이해』, 법인문화사.
- 張昇余(1998), 『日本唐音與明清官話的研究』, 興界圖書出版公司.
- 丁鋒(2008), 『日漢琉漢對音與明清官話音研究』, 中華書局.
- 甯忌浮(2003), 『洪武正韻研究』, 上海辭書出版社.
- 甯忌浮(2009), 『漢語韻書史』, 上海人民出版社.
- 羅常培(1959), 「論龍果夫的八思巴字和古官話」, 『中國語文』 1959년 12월.

Abstract

Oral and Literary Readings of 『Hongmujeongun Yokhun』

Shim, Sohee

In China, discussions about literary and colloquial readings in Chinese dialects have been made since the 20th century, but in Korea, they had already started being investigated five centuries ago during the Chosun dynasty. When King Sejong and the scholars who were in the Jiphyeonjeon created Hunminjeongeum and intended to immediately publish 『Hongmujeongun Yokhun』, they realized that there were two different kinds of pronunciations for the Chinese characters: One was a set of colloquial pronunciations while the other was a set of literary ones. Therefore, King Sejong and the scholars recorded literary pronunciations (correct sounds) as the method for communication with literary persons. At the same time,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with commoners in Yanjing (now Beijing), they also collected *baihuayin* (popular pronunciations, 白話音).

Since the Hongwu Emperor (明太祖) suggested the standard pronunciations for literary reading by publishing 『Hongmujeongun Yokhun』 in 1373, the literati of those days were required to master the literary pronunciations. Therefore, whenever Shin Suk-ju, who was inexperienced at using the literary pronunciations, visited Huang Chan of the Hanlim Academy, Shin was always accompanied by a translator. Also, when he greeted a Chinese envoy, he attended the meeting accompanied by a translator and asked about the literary pronunciations of 『Hongmujeongun』.

『Hongmujeongun Yokhun』 is valued highly in that it was the first work that recorded the literary and colloquial readings in the Yanjing area (now Beijing) in the 15th century. Even more important, 『Hongmujeongun Yokhun』 was a great work which realistically showed the cultural phenomenon that colloquial

and literary sounds co-existed. In fact, Shin Suk-ju spared no effort to collect accurate pronunciations to the point of visiting Huang Chan in Yodong thirteen times. He also inquired into the literary pronunciations when he met scholars who had studied abroad in China. Moreover, he visited Yanjing seven or eight times and collected or recorded colloquial pronunciations which were commonly used among the various people. Finally, he played a pivotal role in compiling 『Hongmujeongun Yokhun』. Therefore, the value of 『Hongmujeongun Yokhun』 should be reconsidered, since it faithfully reflects the phenomenon of two different readings which existed in the 15th century.

Key words : 『Hongmujeongun Yokhun』, Hunminjeongeum, Oral and Literary Readings, King Sejong, literary pronunciations, popular pronunciations

투 고 일 : 2013. 5 . 20. / 심 사 일 : 2013. 06. 01. ~ 2013. 06. 11. / 게재확정일 : 2013. 06. 23.